

선미촌, 문화예술과 인권 공간으로 꾸미자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 18일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집결지 정비 현장 벤치마킹 실시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가 인권 공간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는 18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 정비 현장과 위안부 역사관, 균현대 거리 등 대구시 일원을 둘러보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 자갈마당은 민간업체에 의해 성매매집결지 정비가 진행 중인 곳으로 점진적 가능전환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는 전주시와는 진행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상호 보완을 위해 교류해 오고 있다.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이번 대구시 벤치마킹에서 대구 1909 자갈마당 전시를 관람하며 선미촌에 조성될 인권의 공간 구성을 대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대구시의 균현대 거리 조성 현황과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며 도시재생과 마을기구기, 선미촌 인권공간 조성 등에 대한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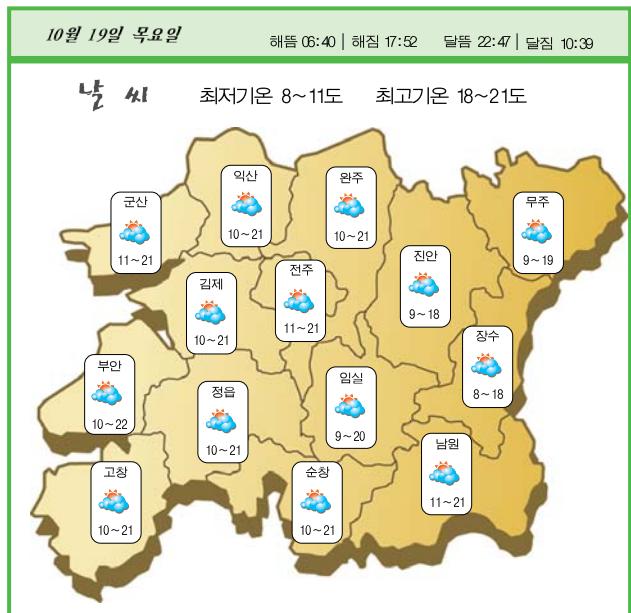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는 18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 정비 현장과 위안부 역사관 균현대 거리 등 대구시 일원을 둘러보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민관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인 선미촌은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예술의 힘으로 여성인권과 주민들의 삶, 시민광총

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교육청

고교 선택 위한 진로·진학자료 배부

‘진로진학 오딧세이 고등학교 선택 길잡이’ 발간

고교 유형·학과 안내 중학생의 진로결정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중학생 및 학부모의 올바른 진로 선택과 고교 선택을 지원하고 교사의 진학 상담자료 제공을 위해 진로·진학 자료를 발간하여 도내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진로진학 오딧세이 고등학교 선택의 길잡이’는 올바른 진로선택의 중요성과 진로탐색 방법을 안내하고 고교 유형 및 학과 안내로 중학생의 진로결정을 지원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또 2018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 안내’는 고입제도 개선에 따른 도내 학교전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 선발인원, 전형방법 등 신입학 전형요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유형에 따른 분류 현황, 모집계열 및 모집학과별 분류, 전형방법에 따른 분류 및 전형일정에 따른 학교별 유형으로 정리하여 중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모집학과 및 고등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진학상담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작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입 원서접수 시기가 다가올에 따라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선택 및 희망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진학상담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고입 원서접수는マイ스터고가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고 전기고(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후기고(일반고)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과학영재교육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규관 교수)은 2018학년도 초·중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초등 심화과정은 과학·수학, 중등 심화과정은 물리·생물·수학·융합수학·정보과학·지구과학·화학분야 등 각각 15명이다.

초등과정의 지원 자격은 전라북도 소재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중등은 도내 소재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류접수 후 1차 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정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 특수교육 어울마당 20일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2017년 전라북도 특수교육 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참가해 홍보·전시·체험·판매·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이번 전북 특수교육 어울마당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전북 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홍보마당, 학생작품이 전시되는 전시마당, 학생들이 만든 물건들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마당 소망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마당 난타·댄스·가족합창 등 5개 마당으로 펼쳐진다.

쳐진다.

전시마당은 전북혜화학교, 전주 은화학교 등 8개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 등이 전시되며, 판매마당은 전북보통학교, 전주선화학교 등 13개 학교 및 기관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가방, 비누, 뺨 목걸이 등이 판매된다.

전북면마학교, 시각장애인특성화센터, 와이네스보정기 등 10개 학교 및 기관이 참가해 장애인을 위한 센터 소개와 보조기기 등을 홍보하는 홍보마당도 열린다.

체험마당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상상체험·팔찌 만들기·풍선 아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 정문 ‘첫 삽’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전북대학교의 얼굴이 될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이 18일 오후 3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남호 총장 등 대학 구성원들과 신축을 위해 기부에 동참한 이용재 전북대 재경동창회장, 진주강씨 지행당 종중·양군의 전 교수·소종섭 교수, 김현주 대현정보통신 회장 등이 참여해 테이프 커팅과 시삽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국고와 자체체 지원원, 각종 기부금 등 70억원이 투입되는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은 건축면적 774.5m², 연면적 1,086.7m²로 2층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전북대 교양 교육을 책임지는 큰사람교육개발원이 들어온다. 2층에는 행각과 누정 등이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전북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2017 진안홍삼 축제

건강충전! 활력충전!
Jinan Red Ginseng Festival

10.19~22 일

마이산 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신로 160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jinanfestival.com

2017 진안홍삼 축제

건강충전! 활력충전!
Jinan Red Ginseng Festival

10.19~22 일

마이산 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신로 160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jinanfestival.com

금 18:00 진안홍삼 붉금 EDM 파티
20

21 토 17:00 트로트 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별빛 걷기 (풍등피우기)

업기기 래떡볶기

태조 이성우 동금식 퍼레이드

매일 쏟아지는 행운을 꽉 잡으세요 ~!

11:00 엽기 홍삼가래떡볶기

13:00 진안홍삼 대박! 터트리기

14:00 홍삼칵테일 소(매일 100명 선착순 체험)

15:00 홍삼대방출(최대 50% 할인판매)

매일 낮 이런 거 처음이지?
홍삼주 분수대, 홍삼 연못, 홍삼 낚시등

매일밤 잠들지 못하는 축제

19일 17:30 개막식 및 개막공연 (에어리얼 쇼)

20일 18:00 진안홍삼 붉금 EDM파티 (DJ 구준엽)

21일 17:00 트로트 페스티벌 (태진아, 설운도, 김연자, 장윤정, 오승근, 조향조, 진성등)

22일 13:00 향우회원과 함께하는 진안홍삼열린음악회 (최성수, 전영록, 남진, 임수정, 김용림 등)

17:00 폐막식 (2018개 LED 풍등 피우기)

20:00 별빛걷기 (풍등피우기)

매일 밤 20:30 내 청춘을 돌려요!! (청춘 나이트)